



1월부터 돼지 등급판정수수료 두 당 380원 부과 방침

- 축산단체,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반대 공동 대응키로



올 1월 1일부터 돼지 등급판정수수료가 두당 380원, 소 2,000원, 계란 개당 0.5원씩 부과 될 것으로 보여 양돈농가의 경우 연간 약 53억원(1천 400두 도축시)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구랍 12월 6일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고시·입안 예고하여 12월 20일까지 관련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본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 축산단체는 지난 12월 9일 본회 회의실에서 6일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고시 입안예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등급판정소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12월 16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해 축산단체는 “소 1두당 2천원, 돼지 1두당 3백80원의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고시(안)’은 지난 9월 6일 이사회시 수수료 징수에 대해 동의 한적이 없다”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관련해 왜곡된 내용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수수료 징수 반대 의견을 취합하여 공동 대응”키로 했다.

경기 이천에서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

- 양돈장 밀집지역 89농가 긴급 이동제한
-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긴급 백신 실시

구랍 10월 8일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경기 김포까지 확산, 12월 16일 10번째 돼지콜레라가 발생된데 이어, 경기 이천에서도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해 전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천지역은 양돈장 밀집지역으로 발생농장 3km이내(위험지역) 15개 농가, 10km이내(경계지역) 89개 농가가 있어 더욱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방역당국은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고 돼지콜레라 확산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잇따른 발생으로 12월 23일 저녁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강화, 김포, 인천 발생농가 10km 이내 농장에 백신을 재접종키로 결정했다.

12월 23일 현재 돼지콜레라는 경기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를 마지막으로 경기 김포지역에서 모두 4건, 인천 강화지역에서 6건, 경기 이천지역에서 1건이 발생하였다. 총 19두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천지역 9,106두, 경기지역 7,382두 총 1만6천488두가 살처분되었다.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실시한 농협가축공제사업이 최근 정부예산부족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다.

농협은 지난 10월29일 가축공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2002년 가축공제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회원조합에게 전달했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지난 11월 21일 가축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예산 14억1천9백만원원을 확보해 농협중앙회에 통보했다.

한편 가축공제사업에는 지난 6일 현재 돼지 6백64만두, 소 10만4천두, 닭 7백16만수, 말 1백두로 총 7천3백51건이 가입되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일단 현재 수준 유지키로

정부가 금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1단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서 농사용은 일단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4일(수) 상공회의소에서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날 "현행 요금체계에서 원가미만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따른 기본 방향"을 밝히고, "농사용 요금의 경우 금번 1단계 개편시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전했다.

가축공제사업 재개

- 농림부, 14억1천9백만원추가 예산 확보
97년 1월부터 축산농가의 재생산 여건 도모와

농림부, 평시 가축방역 대폭 강화

농림부는 지난 11월 25일 국제수역사무국(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우리 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됨에 따라 지속적인 청정성 유지를 위해 평상시 가축방역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12월 6일 안종운 차관 주재로 구제역 청정성 유지를 위한 축산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전국 소독의 날 등 소독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가축거래기록의 의무화하며, 예방접종증명서 휴대제도 등의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외국 휴대축산물 검역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국 여행농가 및 농장고용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나 선박 등은 특별 관리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시·군의 지방방역협의회를 지역축협과 협회장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민간방역을 활성화하고, 방역관리 우수농가와 마을에 대해서는 소독약품·예방약 등을 무상 지원을 확대하여 가축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년 2월 대규모 양돈조합 탄생 전망

-도드람·광주전남·전북양돈조합 공 합병

금년 2월이면 경기도, 전라남·북도 등을 포괄하는 양돈조합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도드람양돈조합, 광주전남양돈조합, 전북양돈조합은 지난 9일과 10일 이들 조합의 통합에 대해 각각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합병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각 조합은 경영실사를 실시한 다음 향후 조합에 대한 투자, 사업, 수지 등의 경영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내년 1월 31일까지 통합 작업을 완료하여 2월초에 정식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부, 축분비료유통센터 곧 설치·운영

-지역농·축협 및 양돈협회 시·군지부 대상

농림부는 지난 11월 30일 “축산분뇨자원화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고 지역내 축분액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03년부터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마련한 축분비료유통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축분발효액비 공급 및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농·축협, 양돈조합 시·군지부 등을 축분비료유통센터로 지정하여 액비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요 균형을 위한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자는 방침이다.

또한 축분발효액비의 적정한 공급 및 수요 축진을 위하여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통

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간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수립하여 축분발효액비 활용을 촉진하고 친환경농업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역 농·축협(축분퇴비유통센터 포함) 및 양돈협회 시·군지부를 대상으로 수거 및 운반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축분비료유통센터 지원규모는 센터당 2억원 이내로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며, 2003년까지 국고 32억원, 지방비 32억원, 자부담 16억으로 40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농림부, 폐사축 개사료 유출시 500만원 이하 벌금

농림부는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폐사체의 방치 또는 임의 처분 등 폐사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방역규정 위반사례로 조치키로 했다.

폐사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지 않고 가축의 사료를 유출하거나 무단투기하는 경우 동법 제41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축단협,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 등 대선공약에 포함 건의

-민주당, 한나라당, 방문하여 면담 가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 대한양돈협회장)는 지난 11월 22일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와 12월 10일 민주당 임채정 정책위의장을 각각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축산업 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축산단체협의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 총 14명의 축산관련단체는 축산분야의 발전을 위해 ▲ 정부 보조금 지원 확대 ▲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 ▲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 ▲ 정부의 한우산업발전대책 지속적 추진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 문제 ▲ 환경규제시 농업부문 제외 ▲ 방역관계 ▲ 관세제도 개선 ▲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책자금 이자율을 각각 1%, 1.5%로 인하하기로 공약을 발표했다.

“돼지콜레라 방역용 소독약 효능 이상없다”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인천·김포지역에 공급·사용되고 있는 소독약품의 효능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최근 인천·경기지역에 사용중인 소독약품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인천·경기 돼지콜레라 방역용 소독약품의 효능검사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인천·경기지역 농가, 통제초소, 소독약품 제조업체 등 방역용 소독약품 57점과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거한 소독약품 12점 총 69점에 대한 내용량 및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과검은 검사 결과 66점의 소독약품에 대한 효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통제초소는 지역별로 대부분 동일한 소독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별 사용제품은 다양하지만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신 축산회관’ 2005년 목표 건립 추진

-축산관련단체 모금 운동 등 전개키로

2005년에 ‘신 축산회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10일 본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 종축개량협회 박순용 회장,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 전국한우협회 이규석 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축산회관 3층 회의실에서 신 축산회관 건립소위원회 회를 개최하고, 신 축산회관 건립을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축산단체는 축산회관 건립을 위해 축산단체장들은 업무를 분담하고, 2002년 12월까지 사업계획 작성 및 확정, 2003년 1월부터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1/4분기까지 부지를 확보하여 2005년 분기에 완성하여 입주할 계획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김포지역 돼지콜레라 피해농가 긴급지원

경기도는 최근 김포지역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대상으로 빠른 시일내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축입식자금과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가축입식자금은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보유가축을 살처분 한 농가 대상으로 연리 3%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경영자금은 이동 제한지역내 위치한 돼지 사육농가 대상으로 연리 3%에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200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과체중 돼지 수매·살처분 조치

- 농림부, 돼지콜레라 발생지역내 돼지 처리방 안 마련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지역 140kg이상 과체중 돼지 및 새끼돼지에 한하여 농가가 원할 경우 축사 수용능력을 감안 수매해서 살처분하기로 하였다. 살처분대상은 일괄사육농장은 140kg이상 과체중 돼지와 새끼돼지 분양농장은 새끼돼지로 규정상 위험지역 해제기간까지 방역상 문제가 없도록 해당농가 부지에 살처분·매몰토록 하고, 시가기준(수매기준가격)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축산 전문지 시장단 '불우이웃돕기'에 동참

- 김기운 회장 등 14개 신문사 사장 70구씩 140만원 기탁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에 축산관련 14개 언론사가 동참했다.

지난 12월 10일 축산전문지사장단협의회(회장 김기운)는 전 축산업계의 관심속에 지난 10월 1일부터 본회와 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에 70구씩 140만원을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에 동참한 신문사는 축산신문(사장 윤봉중), 축산경제신문(사장 김기운), 농민신문(사장 이내수), 농축유통신문(사장 김창석), 농수축산신문(사장 전정희), 한국농어민신문(사장 엄홍우), 농업인신문(사장 이만섭), 전업농신문(사장 류종열), 농축정보신문(사장 강정호), 한국영농신문(사장 이희석), 한국농정신문(사장 장용문), 농업정보신문(사장 이주상), 한국임업신문(사장 김종철), 원예산업

신문(사장 박두환)으로 총 14개 신문사이다.

(주)다비육종 방역기금 2천5백여만원 기탁

-윤익진 사장, 정액 판매시 두당 200원 적립

지난 12월 11일 (주)다비육종·(주)다비 A.I.센타 윤희진 대표이사(본회 전 부회장)는 2001 12월 1일 방역본부와 방역기부금 납입약정을 체결하고 작년 11월 30일까지 1년동안 인공수정용 정액판매시 1두당 200원씩을 적립해온 25,649,400원을 방역본부에 기탁했다.

윤희진 사장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총 6,885만원의 방역기금을 방역본부에 기탁했다.

'돈사 화재로 돼지 3천 500여두 타 죽어'

지난 12월 9일 오후 4시쯤 전북 정읍시 감곡면 소재 신모씨 돈사에서 불이나 돼지 1천3백여두와 축사 3동을 태워 1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데 이어 오후 5시쯤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소재 윤모씨 돈사에서도 불이나 돼지 2천500마리와 돈사 700평을 태워 많은 재산피해를 냈다.

또한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이류면 영평리 소재 한 돼지고기 가공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공장내부(900여㎡) 등을 태워 2억 8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국내에서 형질전환 복제돼지 탄생

- 사람에게 전여 면역거부 반응 없어

사람에게 이식할 장기를 생산할 형질전환 복제돼지가 국내 연구팀에 의해 세계에서 두번째로 탄

생되었다.

지난 달 말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은 여러 차례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한 결과 마침내 GFP 유전자가 완전하게 발현된 형질전환 복제 돼지를 탄생시켰다.

이 돼지는 겉보기에는 일반돼지와 다르지 않지만 돼지의 유전 형질을 사람과 똑같이 바꾼 것으로 사람에게 전혀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점에서 국내 생명공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우석 교수팀이 탄생시킨 형질전환 복제돼지는 통상 태어난지 열흘 넘게 살면 복제의 성공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20일 넘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한다.

농경연, '농업전망 2003 발표대회' 개최

-1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3년 1월 23일(목) '농업전망 2003'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및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발표대회는 농업전망에 이어 1부, 2부, 3부 행사로 나뉘어 FTA 협상 등 국내외 농업·농촌경제 전망과 양돈·양계 축산물 등의 수급 동향과 전망 등으로 진행된다. 농경연은 12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게재하여 참가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돼지콜레라 발생지역내 차량 적색 스티커 부착

-일반차량과 소독대상 차별화

앞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지역내 차량에 대해서는

주황색 야광스티커 차량과 일반차량으로 소독대상이 차별화 된다.

농림부는 지난 11월 25일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방역과 관련,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고, 특히 야간 이동통제시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현장 방역조치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독대상과 방식을 달리하여 주민불편은 줄이면서 소독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돼지콜레라 발생지역내 차량에 대해 적색 스티커를 부착키로 했다.

'VIV아시아' 금년 3월5일 방콕서 개최

지난 93년부터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아시아 축산박람회인 'VIV아시아'가 금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태국 방콕에 위치한 쾨시리키드 내쇼날 콘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신비한 양돈봉침요법" 단행본 발간

한국양돈봉침연구회(회장 한백용)는 봉침으로 돼지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통해 양돈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비한 양돈봉침요법"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신비한 양돈봉침요법" 단행본은 양돈업 종사자들이 실제 농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봉침의 이론과 봉침시술 방법 등을 기술했으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림과 해설이 곁들여 있다. **양돈**